

일본 문헌 속의 송상현(宋象賢) 기록과 그 의미

김준배*

| 목 차 |

- I. 머리말
- II. 조선측 기록 속의 송상현
- III. 일본측 기록 속의 송상현
 - 1. 에도(江戸) 시대 일본 문헌 속의 송상현
 - 2. 근대 일본 문헌 속의 송상현
- IV. 송상현의 죽음과 매장 방식이 지닌 의미
 - 1. 송상현의 죽음이 지닌 의미
 - 2. 정벌전쟁과 패배한 장수, 송상현
 - 3. 송상현의 매장 방식과 그 의미
- V. 맺음말

| 국문초록 |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진행된 전근대 최대 규모의 동아시아 삼국 간의 국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피침략국이었던 조선, 명은 물론 침략국 일본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수많은 관련 문헌의 생산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쟁 초기 동래성을 지키다가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의 일화가 『징비록』을 통해 일본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국가에 충성을 다

* 해군사관학교 제2외국어학과 조교수 / ira1@naver.com

한 사실이 일본인들에게 감동을 주어, 에도 시대 일본에서 용맹스럽고 충절을 갖춘 인물로 여러 문헌 속에 그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송상현 표상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 유입된 다양한 조선의 문헌에 의해 보충되어, 송상현은 보다 더 용맹하고 충절을 갖춘 인물로 근대 일본 문헌 속에 그려지게 되었으며, 그의 죽음은 보다 더 장렬하게 그려지게 되었다. 심지어 어떠한 문헌에서는 그를 ‘국사(國士)’로 칭하여, 송상현은 근대 일본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훌륭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송상현에 대한 평가의 배경에는 그의 죽음과 매장의 방식을 높게 평가했던 일본인들의 태도가 있었다.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성을 지키다가 당당하게 순절한 것은, 무사로서 주군을 위해 전장에서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일본의 전통적 무사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일본에서 매우 훌륭하게 평가받을 만한 것이었다. 또한 그가 죽은 뒤 이루어진 그의 매장이 일본군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점이었다. 침략자의 입장에 있던 일본군에 의해 이루어진 그의 매장은 적군에 대한 진혼(鎭魂) 행위로서, 승자의 자비심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일본에서 칭송받는 일이었으며, 또한 이는 스스로의 침략군으로서의 속성을 약화시키고, 정벌군으로서의 속성을 강화시키는 행동이었다. 송상현은 일본인들에게 있어 동래성을 지키다가 전사한 훌륭한 인물임과 동시에, 결국 패배하여 자신들에게 진혼됨으로써 자신들의 자비심도 보여주게 만들어 준 인물이었다. 이러한 그의 죽음과 매장의 방식으로 인해 송상현의 일화는 에도 시대는 물론, 근대에도 일본 문헌에 상세히 기록될 수 있었으며, 이순신(李舜臣)보다도 일본인들에게 비판받지 않는 인물로서 현재까지 일본 문헌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송상현, 징비록, 일본 문헌, 임진왜란, 에도시대

I. 머리말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조선, 일본, 명이 참전하여 7년에 걸쳐 진행된 전근대 최고 규모의 동아시아 삼국 간 국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참전국 3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수많은 관련 문헌

을 생산하였다. 침략국인 일본에서도 에도(江戸) 시대는 물론이고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임진왜란에 관련한 문헌이 다수 생산되었으며, 많은 일본인들은 이렇게 생산된 문헌을 향유하였다. 특히 일본은 17세기 초 명의 문헌인 『양조평양록(兩朝平壤錄)』을, 1695년 조선의 문헌인 『징비록(懲毖錄)』을 입수하여 임진왜란 시기 각국의 자세한 내막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조합하여 한·중·일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삼국의 문헌을 종합한 임진왜란사를 발간해 냈다. 이는 임진왜란이 종료된 지 약 100여년이 지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에는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조선의 인물이 다수 소개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은 이순신(李舜臣)으로서, 이순신은 『징비록』을 통해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문헌 속에 영웅의 모습으로 적잖이 등장하였다. 이순신은 한국의 국민적 영웅이만큼 적국인 일본 문헌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도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¹⁾ 그러나 일본의 임진왜란 관련 문헌 속에는 이순신 이외에도 다양한 조선의 장수가 등장하고 있는데, 본고에서 살펴볼 동래부사(東萊府使) 송상현(宋象賢)도 그 중 하나이다.

송상현은 1591년 현 부산시 동래구 일대의 동래부의 부사로 부임하여 이듬해인 1592년 일본군에 맞서 동래성을 사수하다가 전사(戰死)한 인물로서, 전사 이후 그의 죽음은 ‘충렬(忠烈)’의 모범 사례로 후대의 귀감이 된 바 있다.²⁾ 한편으로 송상현은 일본 문헌 속에서도 대단한 충절

1) 대표적으로는 김태준, 『日本에서의 李忠武公의 名聲』, 『현대사조』 10, 1978. 최관, 『日本近世文學 속의 李舜臣 장군』, 『비교문학』 별권, 1998. 황정덕, 『일본인이 이순신을 보는 눈』, 『이순신연구논총』 6-1, 2006.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일본인의 연구와 평가』, 『해양문화재』 4, 2011. 노영구, 『征韓衛略』에 나타난 일본의 임진왜란 海戰 이해, 『이순신연구논총』 22-1, 2014 등의 연구가 있다.

2) 전송희, 『동래성전투에 대한 기억서사와 표상-공간의 형성과정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53, 2013, 446쪽.

을 지닌 인물로서 그려져 있으며, 심지어 어떤 문헌은 이순신을 비롯한 여타 조선의 인물들을 비난하면서도 유독 송상현에게만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송상현은 전쟁 초기 전사한 인물로, 임진왜란 전체 국면 상 활약상이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가 일본에서 대단한 충절을 지닌 인물로 평가를 받게 된 것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에 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송상현의 일화가 일본에 전해지는 과정과 그가 일본 문헌 속에서 충신으로 그려지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진왜란 당시의 많은 조선의 인물들이 일본 문헌 속에 그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연구는 주로 일본 문헌 속의 이순신에 관해 조명하는 데에 그쳐왔다. 특히 본고에서 다룰 일본 문헌 속에 그려진 송상현 일화에 대해 언급한 것은 박찬기의 연구가 거의 유일했다.³⁾ 박찬기의 경우 에도 시대의 일본 문헌 『다이코기(太閤記)』(1637), 『조선태평기(朝鮮太平記)』(1705), 『에혼 조선군기(絵本朝鮮軍記)』(1800) 등에 동래성 전투와 송상현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논하면서, 송상현에 대한 묘사는 『조선태평기』, 『에혼 조선군기』를 제외하면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⁴⁾ 그러나 본고에서 확인한 바, 에도 시대 일본에서는 이들을 제외한 다양한 문헌에 송상현 일화가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에도 시대의 문헌에 송상현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면서, 이러한 송상현 일화가 근대 일본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성립되어 갔는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에도 시대와 근대 일본의 문헌만을 다루는 이유는, 에도 시대에 송

3) 박찬기, 『일본 근세 문학에 나타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천공 송상현』, 『일본어문학』 83, 2019. 김시덕의 경우에도 일본 문헌에 송상현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한 적이 있으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김시덕, 『그들이 본 임진왜란』, 학고재, 2012, 190쪽).

4) 박찬기, 위의 논문, 196쪽.

상현이 최초로 알려지면서 그가 충절의 인물로 형상화되기 때문이며, 근대 문헌에서 현대 일본의 송상현 일화의 큰 틀이 정립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 문헌 속에 송상현의 일화가 어떠한 형태로 정리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봄과 동시에, 일본에서 송상현이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조선측 기록 속의 송상현

본고는 먼저 송상현이 조선측 문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송상현은 조선 후기 ‘절의(節義) 서사’의 전형으로서, 그의 절의는 개인의 절의를 넘어서 타인의 절의를 초래하고 적군까지 교화시키는 등의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주목받아 왔다.⁵⁾ 그러나 조선측 기록에 의하면 송상현은 동래성 전투 이후 그 생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었으며, 1592년 전쟁 초기에는 그가 도망갔다는 소문도 존재했다.⁶⁾ 그러나 동년 8월 김해부사 김경로(金敬老)는 송상현이 중과부적인 상황에서도 분전하다가 성이 함락되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진술했으며, 11월에는 김수(金睟)가 “포위당했을 때에 홍윤관(洪允寬)이 성을 나갈 것을 권하자 송상현이 비록 지금 성을 나가더라도 앞으로 안전하게 갈 곳이 있겠느냐?라고 말했으며, 남문에서 손을 모으고 앉아 있자 적이 들어와서는 그를 죽여서 바로 머리를 대마도로 보냈다고 한다”는 보고를 올린다.⁷⁾ 다만 이 시기까지는 선조(宣祖)가 송상현이 죽은 것이 확실하냐며 신하들에게 하문한 것을 보아 정부에서조차 송상현

5) 박종진, 『천곡 송상현의 사상과 『천곡수필』』, 『국학연구』 38, 2019, 257쪽.

6) 전승희, 앞의 논문, 2013, 446쪽.

7) 『선조실록』 권32, 25년 11월 신사.

의 죽음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⁸⁾ 1593년 『선조실록(宣祖實錄)』에 동래성의 함락 당시 부사 송상현이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⁹⁾ 1593년에는 송상현의 죽음이 확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594년이 되자, 송상현이 동래성을 사수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과 그의 죽음 당시의 상황이 조선에 세세하게 전해지게 된다. 1594년 11월 22일 경상우병사 김응서(金應瑞)는 강화 협상을 위해 함안에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이하 고니시) 혹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이하 가토)와 회담을 했는데,¹⁰⁾ 이 때 고니시 혹은 가토는 김응서에게 송상현의 죽음에 관해 상세하게 발언했다.¹¹⁾ 이에 따라 김응서는 현장을 조사하여 송상현을 포증(褒贈)하여 표충(表忠)할 것을 건의했으며,¹²⁾ 선조는 송상현이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을 충운(忠殞)이라 평가하고 그의 행위는 의중(義重)의 발로라고 칭송했다.¹³⁾ 동년 12월 경상도 함양일대의병으로 활동한 정경운(鄭慶雲)은 자신의 일기에 송상현이 절개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자 적장 고니시마저도 동문 밖에 시신을 묻어 주었다고 하는 당시의 소문을 기술했다.¹⁴⁾ 이후 1657년 편찬된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에서 송상현은 충의가 뛰어난 사람으로서 포상을 받아 마땅한 인물로 기록되었으며,¹⁵⁾ 1657년에는 그에게 ‘충렬’의 시호

8) 오인택, 「조선후기 ‘忠烈公 宋象賢 敍事’의 사회문화적 성격」, 『역사와세계』 40, 2011, 57쪽.

9) 오인택, 위의 논문, 35쪽.

10) 이때 일본측 회담의 주체가 누구였는가에 대해 『난중잡록(亂中雜錄)』에서는 고니시를,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에서는 가토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존재한다.

11) 오인택, 「조선후기 ‘忠烈公 宋象賢 敍事’의 사회문화적 성격」, 『역사와세계』 40, 2011.

12) 『선조실록』 권58, 27년 12월 병진.

13) 정수환, 「17세기 淸州 莘巷書院과 宋象賢 추모의 정치적 함의-송상현 祠廟와 書院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9, 2019, 75쪽.

14) 정경운, 『고대일록(孤臺日錄)』 2, 1594, 12월 17일 경신.

가 내려졌다.¹⁵⁾ 이처럼 송상현은 임진왜란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는 그 생사도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윽고 동래성을 사수하다가 죽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충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후 『송동래전(宋東萊傳)』,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간행, 충렬사(忠烈祠)의 건립 등을 통해 조선을 대표하는 ‘충렬공(忠烈公)’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Ⅲ. 일본측 기록 속의 송상현

1. 에도(江戸) 시대 일본 문헌 속의 송상현

이번에는 일본 문헌 속에 송상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전쟁 당시 참전했던 인물들이 기록한 초창기 임진왜란 관련 일본 문헌 속에서는 송상현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니시의 1군에 참전했던 승려와 무사의 기록인 『서정일기(西征日記)』, 『요시노 진고자에몬 비망록(吉野甚五左衛門覺書)』 등에는 동래성 전투가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이 안에 송상현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17세기 말까지 이어져 일본 최초로 임진왜란에 대한 종합적인 서술을 시도한 『다이코기』에서는 물론, 중국 문헌인 『양조평양록』(1606) 등을 수용한 17세기 일본의 임진왜란 문헌인 『조선정벌기(朝鮮征伐記)』(1659), 『도요토미 히데요시보(豊臣秀吉譜)』(1658) 등에서도 동래성의 전투는 매우 간략히 서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송상현의 활약상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15) 정수환, 앞의 논문, 2019, 77~78쪽.

16) 『효종실록』 권10, 4년 3월 경오.

그렇다면 과연 송상현은 어떻게 일본에 전해지게 되었을까?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송상현의 일화는 『징비록』(1604)이 일본에 전해진 뒤에 비로소 일본 문헌 속에 수용된다.¹⁷⁾ 일본에서 『징비록』은 1695년 교토(京都)에서 당대를 대표하는 유학자인 가이바라 엃켄(貝原益軒)의 서문과 조선지도를 첨가하여 화각본(和刻本)으로 간행되었다.¹⁸⁾ 『징비록』은 일본에 유통되자마자 그 서술의 객관성과 임진왜란 전체상을 상세하게 제시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일본에서 신뢰받는 조선측 문헌으로 인정받았으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¹⁹⁾ 1705년 간행된 『조선태평기』와 『조선군기대전(朝鮮軍記大全)』은 물론이고, 『양국임진실기(兩國壬辰實記)』, 『정한위략(征韓偉略)』, 『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紀)』 등에 이르기까지 임진왜란을 다룬 일본의 문헌군 중 조선의 사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문헌들은 거의 대부분 류성룡의 『징비록』으로 그 정보를 충당하였다.

이렇듯 일본에서 임진왜란 관련 주요 문헌으로 확고한 위치를 얻게 된 『징비록』에 의해 본격적인 송상현 일화가 일본에 전해지게 된다. 이 일화가 일본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징비록』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송상현 일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좌병사 이각(李珣)은 이 소식을 듣고 병영으로부터 동래로 들어갔는데, 부산이 함락되매 이각은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모르더니 말로는 밖에 나가서 적을 견제하고자 한다고 핑계하고, 성에서 나와 소산역(蘇山驛)으로 물러나서 진을 치려고 하는지라, 부사 송상현이 자기와 남아서 같이 성을 지키자고 말했으나 이각은 듣지 않았다. 15일에 왜

17) 김시덕, 앞의 책, 2012, 190쪽. 이순신의 이름도 일본에 『양조평양록』이 유입된 이후부터 일본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나, 『징비록』 이후 비로소 그 활약상이 제대로 기술되기 시작한다.

18) 최관·김시덕 공저, 『임진왜란 관련 일본 문헌 해제』, 도서출판 문, 2010, 34~35쪽.

19) 류성룡 저, 김시덕 역, 『징비록』, 아카넷, 2013, 13쪽.

병이 동래에 몰려오므로 송상현이 성의 남문에 올라가서 반나절 동안이나 싸움을 독려하였으나, 성이 함락되자 상현은 곳곳하게 버티고 앉아서 적의 칼날을 받고 죽으니, 왜인들도 그의 목숨을 걸고 성을 지킴을 가상하게 여겨 시체를 관에 넣어 성 밖에 매장하고 말뚝을 세워서 표지하였다.²⁰⁾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 『징비록』에는 송상현이 동래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곳곳하게 버티고 앉아 적의 칼날을 받고 죽었으며, 이를 가상하게 여긴 일본인이 그를 성 밖에 매장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일본인에 의한 송상현 매장 사실은 1594년 김응서의 회담 당시 일본군 장수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일화는 일본 문헌에 수용되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비장하게 변화하게 된다. 근세 일본의 임진왜란사 서술은 주로 에도 시대 상업출판 장르에 속하는 통속군담(通俗軍談)²¹⁾이나 요미혼(讀本)²²⁾ 등을 통해 정리되었는데, 이들 문헌은 판매를 위해 원문에 다양한 과장을 덧붙이거나, 허구를 삽입하여 임진왜란사를 보다 극적으로 그려내었다.²³⁾ 이 과정에서 송상현 일화에는 『징비록』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덧붙여지게 되어, 송상현은 ‘용맹’과 ‘충절’을 갖춘 인물로서 일본 문헌 속에 그려지게 된다.

특히 일본 문헌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징비록』을 수용한 두 문헌, 즉 1705년에 각각 간행된 『조선태평기』와 『조선군기대전』은 송상현의 일화를 수용하여 이를 극적으로 그려냈다. 먼저 살펴볼 『조선태평기』라

20) 류성룡 저, 이재호 역, 『징비록』, 서예기념사업회, 2001, 31쪽.

21) 17~18세기의 전환기에 다수 간행된 에도 시대의 통속적인 군담 장르.

22) 에도 시대 후기에 번성한 역사소설 장르.

23) 최관·김시덕 공저, 앞의 책, 2010, 74쪽.

는 문헌에서 송상현은 ‘지략과 용맹함을 겸비한 자’로 그려지게 되는데,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

좌병사 이반(李斑, 이각의 오기, 필자 주)은 적이 접근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싸우지도 않고 병영을 버리고 동래를 향하여 도망쳐 버렸다. …(중략)… 좌병사 이반은 동래에 있었지만 부산성의 함락 소식을 듣고 두려워 아무런 조치도 않고 도망칠 준비만 하고 있었다. 부사 종상현(宗象賢, 송상현의 오기, 필자 주)은 용맹과 지모를 겸비한 자였는데, 이반이 크게 놀라 허둥댐을 보고 혼계하기를 “어찌 왜노국(倭奴國)의 군세를 두려워하겠는가. 우리는 이 성을 견고히 지켜 방어전을 해야 한다. 공은 또한 사력을 다해 용맹을 떨쳐 왜군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반은 이를 따르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길 “왜군이 반드시 이 성을 공격할 것이니 나는 밖에서 기습의 계략으로 적을 속여 공격하리라”하고, 성을 빠져나와 소산역에 진을 쳤다. …(중략)… 상현은 굳건히 앉아 칼날을 받고 죽었다. …(중략)… 고니시 유키나가는 송상현이 목숨을 걸고 성을 지킨 것에 감동하여 이를 관에 넣어 성 밖에 묻고 뜻말을 세워 이를 표시했다.²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태평기』는 일본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징비록』을 수용한 문헌 중 하나로서, 이각의 이름을 이반으로 쓰거나 송상현의 이름을 종상현으로 쓰는 등(뒤에서는 송상현이라고 제대로 썼다) 몇몇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징비록』의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다이코키』의 내용을 참조한 부분도 존재하나, 송상현 일화의 대강은 『징비록』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태평기』는 『징비록』의 내용을 수용하면서도 『징비록』에는 없는

24) 馬場信意, 『朝鮮太平記』, 1705, 卷四.

몇몇 기록을 추가하여 송상현의 인물상을 조형한다. 예를 들면 송상현이 ‘용맹과 지모를 겸비한 자’였다든가, 송상현이 이각을 향하여 어찌 일본의 군세를 두려워하겠느냐며 사력을 다하여 왜군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호통을 쳤다는 내용 등이다. 즉, 원문인 『징비록』에서 이각에게 다만 자기와 남아서 같이 성을 지키자고 했던 송상현은 『조선태평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각을 훈계하고, 용맹하게 전투를 다짐하는 장수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선태평기』의 송상현 서술은 이 책의 성격에서 기인한다. 18세기 전기의 통속군담은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문헌으로서, 이전 시대에 비해 더욱 극적인 전개를 갖춘 이야기를 원하는 독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원래 사실의 왜곡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²⁵⁾ 『조선태평기』는 바바 노부노리(馬場信意)라고 하는 전형적인 통속군담 작가에 의해 저술되었는데, 그는 작품 속에서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는 수법을 자주 활용하였다. 그에 따라 『조선태평기』는 선행작품의 기사들 중에서도 보다 흥미로운 기사들을 취사선택하여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향이 짙었으며,²⁶⁾ 자주 원문에 없는 내용을 덧붙여 과장함으로써 보다 흥미로운 기사를 창조해내곤 했다. 이는 『조선태평기』에서 『징비록』 원문을 인용하여 재구성한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징비록】 군관 이종인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는 용사이니 적을 보고서 먼저 물려서서는 안 될 것이다”하였다.²⁷⁾

25) 최관·김시덕 공저, 앞의 책, 2010, 74쪽.

26) 井上泰至, 「通俗軍書作家馬場信意の誕生 - 『朝鮮太平記』を中心に, 『学苑』 804, 2007, 11쪽.

27) 류성룡 저, 이재호 역, 앞의 책, 2001, 41쪽.

【조선태평기】 군관 이종인을 불러 크게 화내며, “너는 이름 있는 용사가 아니냐? 지금 적을 보지도 않고 도망가면 어느 곳에 가서 누구의 얼굴을 보려 하느냐? 살아서 의로움이 없는 것보다는 죽어서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고는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크게 이를 간하니²⁸⁾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조선태평기』는 원문인 『징비록』의 기사에 추가적인 기술을 하여, 장면을 보다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조선태평기』가 작품 내내 취했던 방식으로, 이는 이순신에 관한 기사를 『징비록』에서 인용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이었다.²⁹⁾ 이러한 『조선태평기』의 서술태도에 의해 송상현은 원문인 『징비록』 이상으로 용맹하고 적극적인 인물로 근세 일본에서 그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동년 간행된 『조선군기대전』의 경우 송상현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강조했던 『조선태평기』와는 달리 송상현의 ‘충절’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조선군기대전』 속 송상현 일화에 대해 살펴보자.

부사 송상현은 이를 듣고, “이것은 실로 좋지 않은 계략이 아니냐. 무릇 신하로서 성의 책임을 맡아서 형세가 위급하다고는 하나, 적의 모습도 보지 않고 성을 비우고 도망가는 것은 본디 충의(忠義)가 아니다. 형세가 위급할 때에는 목숨을 다할 뿐이다. 필히 성을 베개로 삼아 주계”라며 재삼 이를 말했으나, 이각은 결국 이를 듣지 않고 사 람을 나누어 성을 나가 소산역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 …(중략)… 상현은 자기 혼자데다가 병력이 없어서 이 성을 지키기 어려울 것은 진 작 각오하고 있었으나, 다시 한 번 결심하여 스스로 성의 남문에 올라

28) 馬場信意, 앞의 책, 1705, 卷五.

29) 김준배, 「조선군기물(朝鮮軍記物)에 그려진 이순신(李舜臣) 상(像)－근세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28, 2014, 555~557쪽.

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졸을 독려하여 방어전을 벌였다. 이미 수하의 병졸도 모조리 죽어 방어할 힘이 다하니, 상현은 굳게 앉아 적이 다가와 목을 베도록 하며, “나는 이 성의 대장이다. 와서 내 목을 취하면 상을 받지 않겠는가”라며 목을 내밀어 칼날을 받으니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상현이 절의를 지키고 죽은 것을 크게 기뻐하며, 관을 준비하여 시신을 수습하여 성 외곽 땅을 골라 이를 장사지내고 뜻말을 세워 이 무덤을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은 관대한 행동이었다고 전해진다.³⁰⁾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조선군기대전』 또한 『조선태평기』와 유사하게 『징비록』 원문에 다양한 살을 붙여 송상현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조선태평기』와 차이가 나는 점은 송상현을 ‘충의’와 ‘절의’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상현은 자신의 입으로 충의를 논하며, 성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는다. 이를 본 고니시는 그의 절의에 감탄하여 그를 매장해 주고, 묘지에 뜻말을 세워 이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원문인 『징비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충의·절의라는 단어가 반복 삽입되고, 이를 통해 송상현은 충절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이 또한 『조선군기대전』의 성격과 큰 관련이 있다. 『조선군기대전』은 전형적인 군기작가이자 대표적인 상업작가였던 『조선태평기』의 저자 바바 노부노리와 달리, 그 정체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교토에 살던 승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³¹⁾ 저자 세이키(姓貴)에 의해 작성되어, 『조선태평기』보다 담담하게 사태의 추이를 기록한 문헌이다. 따라서 『조선태평기』가 장수의 전장에서의 ‘무용(武勇)’에 집중한 반면, 이 책

30) 姓貴, 『朝鮮軍記大全』, 1705, 卷四.

31) 一瀬千恵子, 「文禄・慶長の役の伝承-『朝鮮軍記大全』と『朝鮮太平記』, 『日韓相互認識』 1, 2008, 74쪽.

은 장수의 ‘인품(人品)과 지용(智勇)’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³²⁾ 이러한 점에 의해 『조선군기대전』에서 송상현은 원문인 『징비록』 이상으로 그 충절이 강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군기대전』은 그 담담한 필체와 『조선태평기』에 비해 객관적인 묘사 등으로 인해 많은 일본 임진왜란 관련 문헌들의 전거가 되었는데,³³⁾ 이의 영향을 받아 간행된 『에혼 조선군기』, 『에혼 조선정벌기(繪本朝鮮征伐記)』(1853-54)에도 이와 같은 충절을 지닌 인물로서의 송상현의 이미지가 그대로 계승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문헌이 간행될 당시 조선에서도 송상현이 충절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또한 별개의 사정으로 충절의 인물로 송상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18세기의 통속군담이 송상현을 용맹과 충절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했으며 그 배경에는 통속군담 장르의 상업적 특징이 존재했다면, 19세기에는 임진왜란과 관련한 보다 엄숙한 비문학적 문헌들이 등장하여³⁴⁾ 송상현을 담담하게 서술하게 된다. 그 중 하나는 일본 막부의 역사를 쉬운 한문으로 써서 그 지향점이 교육용에 있었던,³⁵⁾ 이른바 초급 역사 교과서인 라이 산요(賴山陽)의 『일본외사(日本外史)』(1829)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국가주의적 색채가 강한 후기(後期) 미토학(水戸學)을 기반으로 한³⁶⁾ 가와구치 조주(川口長孺)의 『정한위략』(1831)이다. 이들은 간행을 통해 일본 전국에 유포되었는데, 『정한위략』은 애초에 가문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보기 위해 작성된 서적이지만 저자의 손자 대에 간행되어 일본에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일본외사』의 경우 막부의 공

32) 김준배, 앞의 논문, 2014, 558쪽.

33) 최관·김시덕 공저, 앞의 책, 2010, 318쪽.

34) 김시덕, 『일본의 대외전쟁』, 열린책들, 2016, 286쪽.

35) 김시덕, 「19세기 전기에 한문으로 집필된 일본 임진왜란 문헌에 대하여-일본외사의 검토를 중심으로」, 『근역한문학회 2017년 하계 기획학술대회 발표문』, 2017, 4쪽.

36) 西沢正史·徳田武, 『日本古典文學研究史大辭典』, 勉誠出版, 1999, 1073쪽.

인을 받아 전국 번교(藩校: 막부 공인 학교)와 사숙(私塾: 사설 학교)에서 역사 교과서로서 사용되었다.³⁷⁾ 따라서 이들이 후대에 끼친 영향력이 적지 않음을 고려했을 때, 이들 문헌 속에 송상현 일화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먼저 『일본외사』에서의 송상현 일화를 먼저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그의 일화가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그 군대에 말하길, “여러분은 싸우느라 지쳤을 것이며, 마땅히 쉬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래로 하여금 방비할 여유를 준다면 우리의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다른 장수들이 뒤쫓아 이르게 한다면 그 공을 다른 이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조속히 공격하여 이를 함락해야 한다.” 군이 힘을 내어 이를 따라서 즉시 나아가 동래를 공격하니, 반나절 만에 이를 뚫어냈다. 참수한 수급이 천여 개였다. 수장 송상현은 굴하지 않고 죽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수습하여 이를 매장하였다.³⁸⁾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일본외사』는 송상현 일화에 대해 상당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 책이 일본 무가의 시대사라는 주제 의식 아래, 13세기부터의 일본의 역사를 서술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7년간 벌어진 임진왜란 서술에 많은 양을 할애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이 책은 송상현이 굴하지 않고 싸우다 죽은 것과, 고니시가 이를 매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성립된 『정한위략』의 경우 이 일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부사 송상현 성문에 올라 독전했다(『징비록』) 성의 병사들은 부

37) 頼多万, 『頼山陽と『日本外史』-草稿から献上まで』, 『安田女子大學大学院文學研究科紀要』合冊11, 2005, 103쪽.

38) 頼山陽, 『校刻日本外史』, 1844, 16쪽.

산이 함락됨을 듣고 싸우지 않고 도망갔다.(『히데요시보』) 이윽고 성이 함락당했다. 상현은 굳건히 앉아 칼날을 받고 죽었다.(『징비록』) …(중략)… 고니시 유키나가가는 상현의 사수함을 가상히 여겨 관을 짜서 이를 성 밖에 매장하고 표지를 세워 이를 알아볼 수 있게 했다.(『소가기』, 『징비록』)³⁹⁾

위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한위략』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나 『소가기(宗家記)』(1717) 등을 동래성 전투를 기술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지만, 송상현의 일화는 큰 틀에서 『징비록』에 의거하여, 송상현이 굴하지 않고 싸우다가 죽었다는 사실과, 고니시가 송상현을 수습하여 매장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에도 시대의 일본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송상현의 시신을 매장한 주체를 고니시로 특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동래성을 공격한 제1군의 총대장이 그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서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에도 시대 문헌에서 송상현의 일화는 『징비록』에 의해 그 대강이 만들어졌으며, 여기에 통속군담의 경우 다양한 살을 덧붙여 구성하고, 역사서의 경우 『징비록』 원문을 거의 그대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송상현은 에도 시대 일본에서 ‘동래성을 지키고자 한 용맹한 자’로서, ‘적의 공격을 받고도 두려워 않고 성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한 장수’로서, ‘고니시가 그 사수함에 감탄하여 시신을 매장한 자’로 정리되었던 것이다.

2. 근대 일본 문헌 속의 송상현

이처럼 『징비록』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던 일본 문헌 속 송상현의 일화는 근대 일본에서 보다 다양한 문헌을 통해 보충된다. 앞서 살펴본 바

39) 川口長孺, 『征韓偉略』 1, 1831, 21쪽 前.

와 같이 조선에서는 송상현의 사후 다양한 문헌을 통해 그를 충절의 표상으로 만들어 냈는데, 근대 일본 문헌은 이러한 조선의 다양한 문헌을 수용하여 더욱 풍부하게 임진왜란사를 그려내면서, 조선으로부터 전해진 송상현의 일화를 보충해 나갔다.

이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선의 문헌을 활용하여 송상현의 일화를 구성한 문헌은 1893년 간행된 기노시타 신코(木下真弘)의 『호타이코 정외신사(豊太閤征外新史, 이하 정외신사)』이다. 이 문헌은 조선침략의 발단부터 1593년 정월에 일어난 평양 전투 직전까지 일어난 일을 사료를 구사하여 서술한 것으로서, 일본에 이미 존재하였던 수많은 임진왜란 관련 문헌은 물론, 『기재잡기(寄齋雜記)』, 『국조보감(國朝寶鑑)』, 『백사집(白沙集)』,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등 다양한 조선측 자료를 활용하는 등, 이 시기 가장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임진왜란을 저술하였다.⁴⁰⁾ 입수 경로는 알기 어려우나, 송상현의 이야기를 저술할 때에는 『천곡집(泉谷集)』까지도 활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조선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저술된 『정외신사』는 이미 조선에서 성립된 송상현의 일화를 대폭 수용할 수 있었으며, 이에 의해 동래성 전투와 송상현의 일화를 앞선 시기의 문헌들보다 자세히 저술할 수 있었다. 어떠한 내용이 보충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일월록(日月錄)』 고니시 유키나가가 동래를 공격했다. 성 밖에 서신을 쓴 목판을 세워 이르길, “너희들은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길을 빌려주어라”고 했다. 상현 또한 글을 써서 말하길,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⁴¹⁾

『정비록』, 『천곡집』, 『국조보감』 상현이 굳건히 앉아 칼날을 받고

40) 北島万次,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早稲田大学博士論文, 1990, 24쪽.

41) 木下真弘, 『豊太閤征外新史』 2, 青山堂, 1893, 14쪽 前.

죽었다. 상현이 죽음을 면하기 어려움을 알고 가로(家老)를 시켜 아버지 송부흥(宋復興)께 보낼 글을 부채에 남기어 이르길, “외로운 성 달빛이 비추는데 커다란 진영은 구할 수 없네. 군신의 의리는 무겁고 부자의 은혜는 가볍구나”라고 했다. 일이 급박해지자 갑옷 위에 조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적병 4명이 다가와 그를 생포하고자 하였다. 상현이 구둣발로 이들을 걷어찼다. 결국 해를 입었다. …(중략)…『국조보감』 병사(兵使) 김응서가 가토 기요마사를 접견했을 때 가토는 상현의 죽음이 의롭다고 말하며, 집안 사람에게 그 시신을 다시 장사지내길 허락했다.⁴²⁾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외신사』에서는 『일월록』, 『연려실기술』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 일본군의 서신에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다(死易假道難)’고 말하는 장면이나, 『천곡집』 등에 수록되어 있는, 송상현이 성의 함락을 앞두고 ‘군신의 의리는 무겁고, 부자의 은혜는 가볍다(君臣義重 父子恩輕)’고 이야기하는 장면,⁴³⁾ 그리고 『국조보감』의 내용을 바탕으로 김응서가 가토를 만났을 때 가토가 송상현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집안 사람에게 그 시신을 장사지낼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장면 등을 추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문헌을 조선으로부터 입수하여 활용함으로써, 『정외신사』는 이전 시기에 이미 『징비록』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던 ‘충절의 인물 송상현’을 보다 더 비장하고 용맹하며(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다), 효보다 충을 더 중시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인물(군신의 의리는 무겁다)로 그려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로 확립된 송상현 표상은 이후 근대 일본의 전형적인 송상현 표상으로 자리매김하

42) 木下真弘, 위의 책, 14쪽 後.

43) 원문인 『천곡집』에 수록되어 있는 문구가 일부 변경된 곳이 있다. 『천곡집』에는 부채에 쓴 시의 내용 중 ‘여러 진영은 평안하네(列鎮高枕)’라는 대목이 있는데, 『정외신사』에는 이 대목이 ‘커다란 진영은 구할 수 없네(大鎮不救)’로 바뀌었다.

게 된다.

이러한 형태로 정립된 송상현 일화는 이후의 일본 문헌 속에서 반복 활용되게 된다. 이들 중 몇몇 문헌을 한번 살펴보면, 1912년 조선에서 활동한 역사가 아오야기 쓰나타로(青柳綱太郎)에 의해 저술된 『이조오백년사(李朝五百年史)』에도 송상현이 ‘군신의 의리는 무겁고, 부자의 은혜는 가볍다’라고 하거나, 일본인 다이라 시게노부(平調信, 야나가와(柳川) 시게노부를 가리킴)가 관을 짜서 송상현의 시체를 넣고 이를 성 밖에 매장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⁴⁴⁾ 동 저자의 1922년작 『이조사대전(李朝史大全)』에는 이의 내용이 보충되어 송상현이 성을 사수하는 일화에 송상현과 다이라 시게노부의 우호관계가 깊어 시게노부가 송상현을 대피시키려 했으나, 송상현이 이를 모른 채 한 이야기가 추가된다. 또한 송상현을 매장한 주체가 소 요시토시(宗義智), 겐소(玄蘇) 등으로 바뀌는 것이 다를 뿐, 큰 줄거리는 대동소이하다.⁴⁵⁾

이러한 경향은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임진왜란 문헌들,⁴⁶⁾ 즉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의 『분로쿠·게이초의 역(文祿慶長の役)』⁴⁷⁾, 1922년 간행된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근세 일본 국민사 조선역(近世日本国民史朝鮮役, 이하 조선역)』, 그리고 1924년 간행된 일본 참모본부의 『일본전사 조선역(日本戦史朝鮮役)』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본

44) 青柳綱太郎, 『李朝五百年史』, 朝鮮研究会, 1912.9, 178쪽.

45) 青柳綱太郎, 『李朝史大全』, 朝鮮研究會, 1922, 267쪽.

46) 한일 강제병합기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이자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역사학자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의 『임진역 잡고(壬辰役雜考)』(1933)에 의하면 당시 일본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학술적 연구로 인정받은 것은 일본 참모본부의 『일본전사 조선역』, 이케우치 히로시의 『분로쿠·게이초의 역』, 그리고 도쿠토미 소호의 『근세 일본 국민사 조선역』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田保橋潔, 『壬辰役雜考』, 『靑丘學叢』 14, 1933.11, 22쪽).

47) 분로쿠·게이초(文祿慶長)는 임진년과 정유년 당시의 일본의 연호(年號)로서, 분로쿠·게이초의 역(文祿慶長の役)은 현대 일본에서 임진왜란을 가리키는 공식 명칭이다.

전사 조선역』에는 동래성 전투가 매우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는 차치하고, 나머지 두 문헌에 송상현 일화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잠깐 살펴해보도록 하자.

먼저 1922년 저술된 도쿠토미의 『조선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역』의 경우 비교적 객관적이고 긴밀한 사료검증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서술했다는 평가와 같이⁴⁸⁾ 사료를 통해 동래성 전투를 정리하고 있다. 큰 줄거리는 앞서 살펴본 『정외신사』와 대동소이하나, 적이 다가오자 송상현이 “이웃 나라의 도리가 원래부터 이러했는가. 우리 너희를 거스리지 않았거늘 너희는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는가”라고 호통치는 장면이 『일월록』을 통해 보충된 것이 다를 뿐이다.⁴⁹⁾ 송상현을 매장한 주체는 아오야기의 저작과 동일하게 다이라 시게노부로 기록되고 있다.

이케우치의 1914년 저서 『분로쿠·게이초의 역』 정편 제일(正編第一)의 경우 송상현 일화에 대해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는 어렵다’고 한 대목을 제외하면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의 내용이 보다 자세히 보충된 동 저자의 1936년작 『분로쿠·게이초의 역』 별편 제일(別編第一)을 살펴보자. 이 책에서 또한 송상현이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는 어렵다’고 한 대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이 내용을 『임진유문(壬辰遺聞)』으로부터 인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⁵⁰⁾ 이를 통해 『임진유문』 또한 이 시기 송상현 기록에 활용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송상현을 대피시키려 한 주체가 다이라 시게마스(平調益)로, 송상현을 매장한 자는 야나가와 시게노부로 나온다.⁵¹⁾ 이 대목에서 이케우치는 다이라 시게마스에 대해 추측하기를,

48) 杉原志啓, 「『朝鮮役』に対する『侵略史観』と『征伐史観』」, 『歴史通』 34, 2015.1, 177쪽.

49) 徳富猪一郎, 『近世日本国民史 豊臣氏時代下篇 朝鮮役』上, 民友社, 1922, 353쪽.

50) 池内宏, 『文禄・慶長の役』別編第一, 東洋文庫, 1936, 12쪽.

51) 池内宏, 위의 책, 12쪽.

‘쓰시마(對馬) 영주 소 가문의 신하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일족일 것’이라 하고 있어 그 정체를 특정하지 않았던 다른 문헌들과의 차별성을 지닌다.⁵²⁾

이처럼 일본에서도 임진왜란 관련 기록으로서 권위를 갖고 있던 문헌들이 송상현의 일화에 대해 일관된 기술을 함으로써, 근대 일본에서의 송상현 표상은 어느 정도 그 틀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군이 길을 빌려달라는 회유에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다’며 단호히 거절하고, ‘군신의 의리는 무겁고, 부자의 은혜는 가볍다’고 발언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으며, 이러한 충절에 의해 죽은 이후 일본인에 의해 매장된 인물로 근대 일본에서 송상현 일화는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10년 경성(京城) 닛칸쇼보(日韓書房)에서 간행된 『일한고적(日韓古蹟)』은 이러한 『정외신사』로 구성된 근대 일본의 송상현 표상을 자신의 언어로 보충하고 있기에 흥미롭다. 이 책은 당시 『경성일보(京城日報)』 기자였던 저자 오쿠다 나오키(奥田直毅)가 『경성일보』에 1910년 3월 이전까지 연재한 임진왜란 관련 기사를 엮어서 출간한 것이었는데,⁵³⁾ 여기에서 송상현은 『동래성의 용사, 남문 위의 자줏빛 기운(東萊城の勇士 南門上の紫氣)』이라는 제명 아래 책의 가장 첫 페이지에 기록되고 있다. 과연 『일한고적』에는 송상현의 일화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관해 한번 살펴보자.

부사 송상현이라는 자는 일의 급박함을 듣고 성내의 민병을 모조리 소집하고, 더욱이 근방 현의 병사를 불러서 동래성을 지키게 했다. 경상도병사 이각 또한 병사를 이끌고 도우러 왔다. 그러나 이각은 부산성이 이미 함락되었음을 듣자 크게 두려워하여 …(중략)… 실로 대

52) 池内宏, 위의 책, 13쪽.

53) 奥田鯨洋編, 『續日韓古蹟』, 日韓書房, 1911, 3쪽.

장계서는 소산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중략)… 상현이 깊이 생각하더니, ‘이 박약한 병력으로 일본의 대군을 상대하니 승패는 이미 뻔하다. 그러나 나는 결사순국을 마음에 다짐하리라’하며, 겁먹은 이들을 이끌고 부성의 남문을 지켰다.⁵⁴⁾

조방장 홍윤관이라는 자는 일의 급박함을 보고 말하길, “일이 급박하니 잠시 물러나 소산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했다. 상현이 웃으며 말하길, “단지 죽을 뿐인 것을, 어찌 이러쿵저러쿵 하겠는가”라고 하며 즉시 손가락을 깨물어 툇툇 떨어지는 피로 부채면에 쓰기를 “외로운 성 달빛이 비추는데 여러 진영이 평안하구나. 군신의 의리가 무겁고 부자의 은혜는 가볍구나”라고 했다. (상현은) 쓰기를 마치자 이를 가로(家老)에게 의탁하여, 돌아가서 아버지께 보고하게 했다.⁵⁵⁾

일본군 중에 다이라 시게마스라는 자가 있었는데(시게마스는 누구인지 모른다), 일찍이 분고(豊後)의 영주 야나가와 시게노부를 따라(조선에, 필자 주) 왕래하며 상현과의 교분을 쌓았다. 상현이 이를 두터운 예를 갖추어 대하였기에, 시게마스는 몰래 이를 감사했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자(시게마스는, 필자 주) 눈짓으로 성 밖의 빈 땅을 알려주면서(상현을, 필자 주) 빨리 도주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상현은 이를 듣지 않았다. 시게마스는 상현이 아직 자신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재삼 손을 써 상현의 옷을 당겼으나, 상현은 더욱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며 책상에서 일어나 북방을 향해 두 번 절하고, 절을 마치자 다시 책상에 기대고자 했다. 우리 병사가 급히 그를 생포하고자 돌진해 오자, 상현은 극도로 격노하여 구둣발을 들어 이를 걷어차자, 우리 병사가 끝내 그를 죽였다. 상현 이 때에 42세, 그 죽음에 임해서 흐트러짐이 없었다.⁵⁶⁾

54) 奥田鯨洋, 위의 책, 1~2쪽.

55) 奥田鯨洋, 위의 책, 2~3쪽.

56) 奥田鯨洋, 위의 책, 3~4쪽.

이윽고 상현이 죽자 시게마스 등이 이를 보고 한탄하며, 판을 만들고 상현을 넣어 성 밖에 매장하고, 표지를 세워 이를 알렸다. 이때부터 남문 위에 항상 자줏빛 기운(紫氣)이 하늘로 피어올라, 수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27년(1594년), 경상도병사 전응서(全應瑞, 김응서의 오기, 필자 주)가 울산에 이르러 도깨비 장군(鬼將軍) 가토 기요마사를 보고 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니, 가토는 이를 의(義)라고 칭하며, 집안 사람으로 하여금(상현을) 다시 매장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⁵⁷⁾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 책은 송상현이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 주기는 어렵다’고 한 장면, ‘군신의 의리는 무겁고, 부자의 은혜는 가볍다’고 발언하는 장면 및 가토가 송상현의 죽음을 ‘의’라고 이야기하며, 집안사람에게 다시 매장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장면 등이 기록되어 있어, 앞서 살펴본 『정외신사』에 기록된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음과 동시에, 다이라 시게마스가 그를 대피시키고자 했던 장면, 그리고 『천국집』에 수록되어 있는 『이항복의 제문(祭宋東萊文)』의 내용 등이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문의 내용 중에는 ‘밤마다 남문 위에 떠오른 자줏빛 상서로운 기운(瑞氣)이 바로 솟아 북두(北斗)를 찌르는 것은 공의 정기가 아니던가’라는 대목이 있는데,⁵⁸⁾ 『일한고적』은 이 대목을 활용하여 송상현이 죽게 되자 “남문 위에 항상 자줏빛 기운이 하늘로 피어올라, 수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는 대목을 기록하여, 송상현의 죽음으로 인해 하늘이 감동한 것으로 묘사한다.

한편 이 문헌에서는 송상현의 죽음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다수 추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송상현이 ‘이 박약한 병력으로 일본의 대군을 상대하니 승패는 이미 뻔하다. 그러나 나는 결사순국을 마

57) 奥田鯨洋, 위의 책, 4쪽.

58) 오인택, 앞의 논문, 2011, 41~42쪽에서 재인용.

음에 다짐하리라'라며 패배를 각오하면서도 순국할 것을 마음에 다짐했다는 장면이나, 부하가 도주하자는 말에 “단지 죽을 뿐인 것을, 어찌 이러쿵저러쿵 하겠는가”라고 하는 장면, 그리고 송상현이 ‘죽음에 임해서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저자의 창작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 저자는 송상현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결국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의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형태로 근대 일본에 정립된 송상현 표상은 그를 조선을 대표하는 충신으로 일본인들에게 인식되게 만들어 준 것으로 판단된다. 1922년에는 그를 가리켜 ‘온 나라에서 떠받드는 뛰어난 선비(國士)’로 칭송하는 기록도 보인다. 1922년 간행된 『군사적비판 : 호타이코 조선역(軍事的批判 : 豊太閣朝鮮役, 이하 군사적비판)』은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을 ‘미몽(迷夢)이 각성하지 않은’ 나라로 평가하며 ‘침략당해 마땅한 국가’로 그려냄과 동시에 이순신을 단지 ‘운이 좋은 장수’로 비하한 문헌으로도 유명한데,⁵⁹⁾ 이 문헌에서도 유일하게 송상현만은 칭송받게 된다.

(임진왜란의 전투는, 필자 주) 전투라고 칭하기보다 오히려 사냥과 같은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각지의 전투는 모두 이러한 종류의 것이었을 터이다. 오직 동래군수 송상현만이 그 성을 굳건히 지켜서 굴하지 않고 분투하여 성을 지키다가 끝내 순절하여, 이로써 ‘국사(國士)’의 면목을 지킬 수 있었을 뿐이다. 만약 그들로 하여금 다소라 해도 군인의 기질을 지니게 했었다면 백리의 산하가 어찌 하나의 험한 요새가 되지 않았으랴.⁶⁰⁾

59) 김준배, 「일본 문헌 속 이순신 비판 담론의 구조-『군사적 비판 : 호타이코 조선역(軍事的批判 : 豊太閣朝鮮役)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113, 2020.5, 283~284쪽.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문헌은 송상현을 ‘國士’로 칭송하며, 그와 같은 ‘군인의 기질’을 모든 조선인들이 갖추었다면 조선의 산하는 하나의 험한 요새가 되었을 것이라고 서술한다. 이는 일본 문헌에서 송상현을 뛰어난 인물로 서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상하지 않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책이 조선과 조선을 대표하는 장수인 이순신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저자의 이러한 서술이 더 흥미롭게 여겨진다. 이제부터 과연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IV. 송상현의 죽음과 매장 방식이 지닌 의미

1. 송상현의 죽음이 지닌 의미

그렇다면 어쩌서 송상현은 일본에서 이토록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인물로 자세히 기록되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래성을 사수했던 송상현의 일화는 조선에서도 이미 17세기 중반에 충절의 표상이 된 바 있으며, 이러한 송상현의 일화는 근대 이후 일본에도 유입되어, 충절의 인물로서의 송상현 표상을 완성시켰다. 그러나 같은 시기 조선측 기록으로 거의 유일하게 『징비록』을 수용한 이 당시 일본 문헌이 송상현을 『징비록』에 없는 어구를 덧붙이며 용맹스럽고 충절을 갖춘 인물로 기록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극적인 스토리 전개를 위해 과장과 창작의 방법을 자주 사용하였던 통속군담의 특성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이겠으나, 송상현이 동래성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당시 일본의 군담 작가들의 입맛에 부합한

60) 杉村勇次郎, 『軍事的批判: 豊太閤朝鮮役』, 日本学術普及会, 1922, 247~248쪽.

주제였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비록 적장이라 할지라도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장수를 기록하며 이를 칭송하는 경향이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근대 초 일본에서는 나폴레옹(Napoléon)의 해군을 트라팔가(Trafalgar) 해전에서 제압하고 승리를 거둔 영국의 해군장수 넬슨(Nelson)이 전투의 막바지에 죽음을 맞이한 사실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⁶¹⁾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여 자살한 청나라의 북양수사제독(北洋水師提督) 정여창(丁汝昌) 또한 충의지사(忠義の士)로 표현되며⁶²⁾ 이러한 자결은 ‘국가를 위한’ 것이고, 그러한 정여창의 충의를 칭송하는 것이 ‘일본 무사의 본의’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⁶³⁾ 앞서 언급했던 아오야기도 『조선 사천년사(朝鮮四千年史)』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순신의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으로 평가하면서 ‘하나의 죽음으로 국가에 다한 충렬’이라고 칭송한 것과 같이,⁶⁴⁾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에서 전사한 이순신 또한 일본에서 내내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이는 무사로서 주군을 위해 전장에서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일본의 전통적 무사관이 그 기저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⁶⁵⁾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일본에서 군신(軍神)으로 추앙받았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공적(功績)보다 그에 대한 미담이나 희생, 즉 죽음에 의해 군신으로 추앙받았다.⁶⁶⁾ 앞서 살펴본 『정외신사』에서도 이와 관계가 깊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저자인 신코는 한산도 해전을

61)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도요 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담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38, 2017, 240쪽.

62) 小笠原長生, 『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 海軍大学校, 1902, 147쪽.

63) 佐藤鉄太郎, 『帝国国防史論』 上, 原書房, 1908, 154쪽.

64) 青柳綱太郎, 『朝鮮四千年史』, 朝鮮研究会, 1917, 186쪽.

65) 小澤富夫, 『歴史としての武士道』, ぺりかん社, 2005, 143~150쪽.

66) 야마무로 겐토쿠(山室建徳), 「일본 근대 군신상(軍神像)의 변천」, 『일본학연구』 37, 2012, 30쪽.

기록하면서 이 전투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할복자살했다고 하는 구루시마 미치유키(来島通之)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국난에 당면하여 몸을 바치는 것은 신하의 큰 도리이다. ‘바다에 가면 물에 젖은 시체가 되고 산에 가면 풀이 난 시체가 되리(海行水屍 山行草屍)’⁶⁷⁾는 이미 상고 시대 가요에 기록된 것이다. 우리 황실이 이로써 기틀을 세웠다. …(중략)… 생각건대 날아오는 화살이 눈 앞에 가득할 때에도 어찌 혈로(血路)를 피할 한 길이 없었겠는가. (구루시마의, 필자 주) 그 심정은 생각건대 몸은 죽을 수 있으나 나라는 욕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필자 주) 일본 남아가 ‘물에 젖은 시체가 되고 풀이 난 시체가 되는 것’의 본질을 드러내기에 족하다.⁶⁸⁾

이와 같이 신코는 구루시마의 자결을 ‘국난에 당면하여 몸을 바치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고 하며, 능히 ‘혈로를 피할 한 길’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나라를 욕보일 수 없기에’ 할복자살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바다에 가면 물에 젖은 시체가 되고 산에 가면 풀이 난 시체가 되리’라는 말과 같이,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일본 황실의 기틀이 되는 정신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일한고적』에서도 송상현이 죽음을 각오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술되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송상현이 “이 박약한 병력으로 일본의 대군에 대함은 승패는 이미 뻔하다. 그러나 나는 결사순국을 마음에 다짐하리라”라며 패배를 각오하면서 순국할 것을 마음에 다짐했다고 기술하거나, 부하가 도주하자

67) 해당 어구는 일본의 전통 시가집 『만요슈(萬葉集)』(759년 이후 성립) 속 오토모노 야카모치(大伴家持)가 지은 『賀陸奥國出金詔書歌』에 나오는 어구로서, 바다에 가면 물에 젖은 시체가 되고 산에 가면 풀이 난 시체가 되어, 주군의 말아래에서 죽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어구이다.

68) 木下真弘, 앞의 책, 1893, 31~32쪽.

말에 “단지 죽을 뿐인 것을, 어찌 이러쿵저러쿵 하겠는가”라고 했으며, 송상현이 ‘죽음에 임해서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기술한다. 이러한 기록은 저자의 창작으로서 결국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지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저자는 송상현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결국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전장에 임하여 그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장수의 충렬이 매우 고평가 받았으며, 따라서 송상현이 동래성을 지키다가 성의 함락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것은 일본인들에게 있어 매우 가치가 있는 행동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2. 정벌전쟁과 패배한 장수, 송상현

이러한 송상현의 죽음의 방식에 더하여, 그의 일화가 일본 문헌에 널리 수용되며 그가 충절의 인물로 자리매김한 것에는 그가 ‘패배한 장수’였다는 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이는 동일하게 조선의 장수였으며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순신이 일본에서 비판받은 근거를 살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순신을 비판한 일본의 문헌이 흔치는 않지만,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이순신은 『정한위략』, 『정외신사』, 『군사적비판』, 『조선역수군사(朝鮮役水軍史)』(1942) 등에서 비판받았다.⁶⁹⁾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임진왜란을 ‘정벌전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이에 의해 이순신을 비판한 바 있다.

정벌전쟁이 어떻게 이순신 비판론에 이어지는가에 관해 살펴보자면, 에도 시대 초기 일본 문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에도 시대 초기에는 임진왜란이 정벌전쟁이라는 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의 문헌으로, 임진왜란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전기라 일컬어지는 『다이코키』

69) 김준배, 앞의 논문, 2020.5, 301~305쪽.

에서는 임진왜란을 노골적인 침략전쟁으로 그리면서, 이를 수행한 도요 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대해서도 완곡하게나마 비판을 가했다.⁷⁰⁾ 이러한 임진왜란 비판론의 배경에는 주자학(朱子學)에 근거한 유교적 정도론(儒教的正道論)이 있었으며,⁷¹⁾ 이러한 히데요시에 대한 비판론은 동 시기의 여타 주자학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상이었다. 가이바라 애헌은 일본판 『징비록』의 서문을 쓰며 임진왜란을 탐욕스러운 전쟁(貪兵), 교만한 전쟁(驕兵)이며, 분노를 참지 못한 전쟁(忿兵)을 겸한 것이라고 하여, 도요토미 가문이 멸망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단정하였다.⁷²⁾ 그러나 에도 시대 중기 이후 『조선정벌기』와 『정한록(征韓錄)』(1671)의 간행, 이후의 『정한위략』 등의 간행은 임진왜란 당시에는 ‘가라이리(唐入),’ ‘고려진(高麗陣),’ ‘조선진(朝鮮陣)’ 등으로 불리던 임진왜란의 명칭을 ‘정벌’로 바꾸게 되었으며,⁷³⁾ 이때부터 임진왜란은 일본 내에서 정벌전쟁으로 규정된다.

정벌이란 하늘의 권위를 얻은 천자(天子)·천제(天帝)·천황(天皇)이 야만(野蠻) 혹은 부도덕한 정치 상태를 바로잡는다고 하는 도덕적 우월성의 함의를 가진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제국은 하나의 의식으로 수립되고, 그 통일성을 위협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는 것이다.⁷⁴⁾ 이러한 정벌의 핵심은 ‘대의(大義),’ 즉 정당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벌을 하는 쪽은 천자(天子)의 군대로서 대의를 지니고 있기에 마땅히 승리해야만 하며, 정벌을 당하는 쪽은 부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패배해 마땅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

70) 阿部一彦, 「近世初期軍記の研究」, 早稲田大学博士論文, 1999, 8쪽.

71) 阿部一彦, 위의 논문, 10쪽.

72) 杉村勇次郎, 앞의 책, 1922, 3~4쪽.

73) 최관,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어떻게 인식하여 왔는가」, 『아시아문화연구』 15, 2008, 233쪽.

74) 井上泰至, 「文祿・慶長の役を記憶する-「復古」/「維新」の前提としての武家説話-」, 『日本文學』 59, 2010, 64쪽.

리에 의해 에도 시대 중기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의 대의가 일본에 있으며, 조선과 명은 부정(不正)한 국가로서 정벌당해 마땅한 국가로 규정되었다.⁷⁵⁾ 이와 더불어 근대 일본에서 임진왜란은 실패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승리한 전쟁’ 혹은 ‘실패했으나 실패했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전쟁’으로 여겨져 왔고,⁷⁶⁾ 적지 않은 수의 문헌에서는 일본이 결국 승리하는 것으로 임진왜란 이야기를 마무리짓기도 했다.⁷⁷⁾ 이순신은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일부의 문헌 속에서 ‘패배해 마땅한 국가의 장수’로서 그 공적이 축소되거나⁷⁸⁾ ‘본인이 잘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일본이 실수해서 이기게 된 것’⁷⁹⁾으로 평가절하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송상현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송상현은 『정한위략』, 『정외신사』 등에서 비판을 받기는커녕 그 장렬한 죽음이 자세히 그려졌다. 심지어 이순신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군사적 비판』에서 송상현은 ‘國士’로까지 칭송받았다. 송상현은 장렬한 죽음에 의해 일본인들을 감동시킨 인물이었음과 동시에, 그 죽음으로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인물이었다. 죽으면서까지 최후의 전투에서 일본인들을 괴롭힌 이순신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따라서 임진왜란을 정벌전쟁으로 해석하는 에도 시대 중기~근대의 일본인들에게 있어 송상현을 칭송하는 것은 보다 손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대까지의 일본의 문헌 속에 ‘정벌당해 마땅한 국가에서 승리한 장수’ 이순신에 대한 비판론은 가끔 찾아볼 수 있으나, 송상현에 관한 비판론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75) 김준배, 앞의 논문, 2020, 5, 296~299쪽.

76) 杉村勇次郎, 앞의 책, 1922, 4쪽.

77) 阿部一彦, 『太閤記とその周辺』, 和泉書院 1997, 200쪽.

78) 노영구, 「19세기 일본의 임진왜란 海戰과 李舜臣 이해」, 『한국인물사연구』 24, 2015, 136쪽.

79) 김준배, 앞의 논문, 2020, 301쪽.

3. 송상현의 매장 방식과 그 의미

한편으로는 송상현의 죽음 이후 이루어진 그의 매장이 ‘일본군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또한 송상현을 일본에서 칭송받게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비록 적장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승리한 측에서 진혼(鎭魂)함으로써 승자의 자비심을 보여주는 것이 훌륭한 행동으로 칭송받아 왔다.⁸⁰⁾ 이는 일본 영웅 신화의 구조가 승자(勝者)의 전승에서보다 패자(敗者)의 전승에서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가 있다.⁸¹⁾ 김후련에 의하면 일본의 가장 이른 역사서 『고지키(古事記)』(712)에서의 신화는 패배자의 영웅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을 정복한 승자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며, 더욱이 승자는 패자를 정복한 후 이들을 진혼함으로써 양자 모두 야마토(大和) 왕권의 왕화(王化) 안에 포섭한다.⁸²⁾ 이러한 점에서 패배한 적장을 매장하는 행위는 승자로서 이들을 진혼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동은 일본군의 영웅성을 부각시킬 뿐 아니라 침략자로서의 속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즉, ‘일본군에 의한 적장 송상현의 매장’이라는 행동은 침략군인 일본군을 인의를 가진 집단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전쟁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임진왜란을 침략전쟁이 아닌 정벌전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임진왜란을 조선에 대한 정벌전쟁, 즉 ‘정한(征韓)’으로 규정한 『정한위략』의 경우 조선군의 활약상을 다수 생략하는 반면, 일본군의 활약상을 자세히 기록하는 동시에 송상현의 활약상과 그의 장렬한 죽음,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일본군의 매장 사실은 그 어떤 삭제도 없이 그대로 기록한다.⁸³⁾ 이는 송상현의 일화가 임진왜란을 정벌전쟁

80) 김후련, 「일본 영웅신화의 구조와 논리」, 『역사문화연구』 22, 2005, 219쪽.

81) 김후련, 위의 논문, 218쪽.

82) 김후련, 위의 논문, 218~219쪽.

으로 규정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군의 정의로움을 보여주는 데에 기여한 대목이었기 때문이다.⁸⁴⁾ 유사한 방식으로 임진왜란을 정벌전쟁으로 강하게 규정한 『정외신사』의 경우도 일본군의 행동은 정의로 규정되는 동시에 송상현이 국가에 충성을 다하며 장렬하게 전사하는 충신으로 자세히 기록되었음을 앞서 살펴본 바 있다. 송상현을 ‘國士’로 칭송한 『군사적 비판』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이 일본인들이 송상현의 활약을 치하하며 그를 매장해 주었다는 것이 과연 일본인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는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도 시대에는 송상현을 매장한 주체로 고니시가 주로 언급되었는데, 흥미롭게도 고니시를 비난하며 그의 라이벌격이었던 가토를 칭송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문헌군에서는 이러한 동래성 전투 기사가 생략된다. 예를 들어 노골적으로 가토를 현창하고 고니시를 비하하는 경향을 지닌 『에혼 다이코기(繪本太閤記)』(1797-1802)와 같은 문헌에서는 동래성 전투 기사가 빠지고 황석산성(黃石山城) 전투 기사가 소개되는데, 이 기사에서는 오히려 가토가 황석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조선인을 매장해주는 기사가 실린다.⁸⁵⁾ 이는 『에혼 다이코기』의 창작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적군에 대한 매장이 매장을 주도했던 이의 인의를 보여주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와 유사하게 가토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근대 신문연재소설, 무라이 겐사이(村井弦齋)의 『요로이노 가제(鎧の風)』(1898)의 경우에도 “동래의 수장 종상현(宗象賢, 송상현의 오기, 필자 주)은 부산의 패전으로 일본의 대군이 밀려온다는 것을 듣고 정신이 나가 일본의 군기

83) 川口長孺, 앞의 책, 1831, 21쪽 前.

84) 김준배, 「19세기 일본 임진왜란 문헌 속의 이순신」, 『이순신연구논총』 31, 2019, 180쪽.

85) 김시덕, 앞의 책, 2016, 190쪽.

를 보지도 않고 제일 먼저 성을 나와 북쪽으로 도망쳤다”⁸⁶⁾라며 고니시가 송상현을 매장한 것을 생략함은 물론이고 송상현이 전투를 하기도 전에 도망간 것으로 기록한다. 가토 기요마사 문헌군에 동래성 일화가 의도적으로 삭제된다는 점에서, 동래성 전투는 고니시 측에 유리한 일화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일본군이 적장인 송상현을 매장한 일화는 좁게는 고니시의, 넓게는 일본군의 자비심을 보여주는 일화로 인식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침략군이었던 일본군은 자비심을 지닌 정의로운 정벌군으로 비취질 수 있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일본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송상현 일화를 살펴보고, 송상현이 어쩌서 일본에서 용맹과 충절을 갖춘 인물로 기록되어 왔는지에 관해 논해보았다. 송상현은 조선에서는 전쟁 초기에 그 죽음마저 불분명했으나,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성을 사수하고자 분투했으며, 끝내 성의 함락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절의 상징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졌다. 이러한 그의 활약상과 장렬한 죽음은 『징비록』을 통해 침략국인 일본에도 알려져, 그는 에도 시대의 일본 문헌 속에 용맹과 충절을 갖춘 인물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송상현의 일화는 근대 일본에서 조선의 문헌을 통해 보충되어, 그는 일본 문헌 속에 대단히 용맹하고 죽음을 두려워 않는 인물로 기록되어, 일본인들에게 기억되었다.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남긴다. 따라서 전쟁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 적의 장수를 칭송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전쟁이

86) 村井弦齋, 『鎧の風』, 春陽堂, 1898, 105쪽.

자신들이 실패한 전쟁이었을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송상현은 충렬과 용맹을 지닌 장수로 칭송을 받아 왔으며, 그의 장렬한 죽음에 대해 일본인들은 자세히 기록하였고, 후자는 그를 ‘국사’로 칭송하기도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송상현의 죽음은 그 일반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에도 시대와 근대 일본인들에게 인상을 준 것은 분명하다.

일본인들에게 있어 송상현의 일화는 그들이 매우 높게 평가하는,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송상현의 분투는 상세히 기록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으며, 적장이라 할지라도 매장할 만한 인물이었고, 그들을 매장한 자신들의 행동을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송상현은 적국이었던 일본에서도, 그리고 그가 목숨을 다해 지키고자 했던 한국에서도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4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억되고 있다.

| 참고문헌 |

1. 저서 및 논문

- 김시덕, 『그들이 본 임진왜란』, 학고재, 2012.
- _____, 『일본의 대외전쟁』, 열린책들, 2016.
- _____, 「19세기 전기에 한문으로 집필된 일본 임진왜란 문헌에 대하여-일본외사의 검토를 중심으로」, 『근역한문학회 2017년 하계 기획학술대회 발표문』, 2017.
- 김준배, 「조선군기물(朝鮮軍記物)에 그려진 이순신(李舜臣) 상(像)-근세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28, 2014.
- _____,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 · 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담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38, 2017.

- _____, 「19세기 일본 임진왜란 문헌 속의 이순신」, 『이순신연구논총』 31, 2019.
- _____, 「일본 문헌 속 이순신 비판 담론의 구조-『군사적 비판: 호타이코 조선역(軍事的批判: 豊太閤朝鮮役)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113, 2020.
- 김후련, 「일본 영웅신화의 구조와 논리」, 『역사문화연구』 22, 2005.
- 노영구, 「19세기 일본의 임진왜란 海戰과 李舜臣 이해」, 『한국인물사연구』 24, 2015.
- 류성룡 저, 김시덕 역, 『징비록』, 아카넷, 2013.
- _____, 저, 이재호 역, 『징비록』, 서애기념사업회, 2001.
- 박종천, 「천국 송상현의 사상과 『천곡수필』」, 『국학연구』 38, 2019.
- 박찬기, 「일본 근세 문학에 나타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천곡 송상현」, 『일본어문학』 83, 2019.
- 야마무로 겐토쿠(山室建徳), 「일본 근대 군신상(軍神像)의 변천」, 『일본학연구』 37, 2012.
- 오인택, 「조선후기 ‘忠烈公 宋象賢 敘事’의 사회문화적 성격」, 『역사와세계』 40, 2011.
- 전송희, 「동래성전투에 대한 기억서사와 표상-공간의 형성과정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53, 2013.
- 정수환, 「17세기 淸州 莘巷書院과 宋象賢 추모의 정치적 함의-송상현 祠廟와 書院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9, 2019.
- 최관,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어떻게 인식하여 왔는가」, 『아시아문화연구』 15, 2008.
- 최관·김시덕 공저, 『임진왜란 관련 일본 문헌 해제』, 도서출판 문, 2010.
- 青柳綱太郎, 『李朝五百年史』, 朝鮮研究会, 1912.
- _____, 『朝鮮四千年史』, 朝鮮研究会, 1917.
- _____, 『李朝史大全』, 朝鮮研究會, 1922.
- 阿部一彦, 『太閤記とその周辺』, 和泉書院 1997.
- _____, 「近世初期軍記の研究」, 早稲田大学博士論文, 1999.
- 池内宏, 『文祿・慶長の役』別編第一, 東洋文庫, 1936.
- 一瀬千恵子, 「文祿・慶長の役の伝承-『朝鮮軍記大全』と『朝鮮太平記』」, 『日韓相互認識』 1, 2008.
- 井上泰至, 「通俗軍書作家馬場信意の誕生-『朝鮮太平記』を中心に」, 『学苑』 804,

2007.

_____, 「文祿・慶長の役を記憶する-「復古」/「維新」の前提としての武家説話-」,
『日本文學』 59, 2010.

小笠原長生, 『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 海軍大学校, 1902.

奥田鯨洋編, 『續日韓古蹟』, 日韓書房, 1911.

小澤富夫, 『歴史としての武士道』, 베리칸社, 2005.

佐藤鉄太郎, 『帝国防史論』 上, 原書房, 1908.

杉原志啓, 「『朝鮮役』に対する『侵略史観』と『征伐史観』」, 『歴史通』 34, 2015.

杉村勇次郎, 『軍事的批判: 豊太閤朝鮮役』, 日本學術普及会, 1922.

田保橋潔, 「壬辰役雜考」, 『青丘學叢』 14, 1933.

徳富猪一郎, 『近世日本国民史 豊臣氏時代丁篇 朝鮮役』 上, 民友社, 1922.

西沢正史・徳田武, 『日本古典文學研究史大辭典』, 勉誠出版, 1999.

村井弦齋, 『鎧の風』, 春陽堂, 1898.

頼多万, 「頼山陽と『日本外史』-草稿から献上まで」, 『安田女子大學大學院文學研究
科紀要』 合冊11, 2005.

2. 사료

『선조실록』 권32, 25년 11월 신사.

『선조실록』 권58, 27년 12월 병진.

『효종실록』 권10, 4년 3월 경오.

정경운, 『고대일록(孤臺日錄)』 2, 1594, 12월 17일 경신.

川口長孺, 『征韓偉略』 1, 川口長孺, 1831, 21쪽 前.

北島万次,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早稲田大学博士論文, 1990.

木下真弘, 『豊太閤征外新史』 2, 青山堂, 1893.

姓貴, 『朝鮮軍記大全』, 1705.

馬場信意, 『朝鮮太平記』, 1705.

頼山陽, 『校刻日本外史』, 頼山陽, 1844.

| Abstract |

The description and meaning of Song Sang-hyeon
in Japanese literature

Kim, Joon-Bae

The Imjin War was the largest international war between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in the pre-modern era, which took place from 1592 to 1598. This war had a tremendous impact on the invaded countries such as Joseon and Ming, as well as the aggressor Japan, and sparked the production of numerous related documents. In this process, the anecdote of Song Sang-hyeon who passed away while protecting Dongrae fortress in the early days of the war, was transmitted to Japan through 'Jingbirok', and the fact that he was loyal to the country even risking his death moved the Japanese people. He was portrayed in various literatures as a brave and loyal character in Japan. This image of Song Sang-hyeon was supplemented by various Joseon literatures introduced to Japan after the Meiji Restoration, and Song Sang-hyeon was portrayed in modern Japanese literature as a more valiant and loyal person, and his death was portrayed more fiercely. Some literatures even called him 'A great scholar representing the country', and Song Sang-hyeon was evaluated as a great figure representing Joseon in modern Japan.

The background of this evaluation of Song Sang-hyeon was the attitude of the Japanese who highly valued his death and burial method. The fact that he bravely sacrificed while guarding the castle at the risk of death was in line with the traditional Japanese samurai, who took it for granted as a samurai to die on the battlefield for his lord, and was worthy of a very good

evaluation in Japan. It wa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his burial after his death was by Japanese soldiers. His burial by the Japanese soldiers in the position of the aggressor was praised in Japan as an act of remembrance to the enemy army and as an act of showing the victor's compassion, and this weakened its own character as an aggressor and served as a conquest force. It was an action that strengthened the attribute. To the Japanese, Song Sang-hyeon was a great figure who died while defending Dongrae fortress, and at the same time, he was a person who made Japanese show their compassion by eventually being defeated to them. Because of his death and burial, Song Sang-hyeon's anecdote could be recorded in detail in Japanese literature not only in the Edo period but also in modern times.

Key Words : Song Sang-hyeon, Jingbirok, Japanese literatures, the Imjin War, Edo period